

옛날 H_AT_EX 절표제, kotex-sections

Nova De Hi

2014/06/09

제 1 절 소개

ko_TE_X-utf와 Lua_TE_X-ko, X_Y_TE_X-ko의 다른 점 중 하나가 절표제입니다.

ko_TE_X-utf에서 [hangul] 옵션을 주면 `\section`에 대하여 “제 1 절”로 식자됩니다. Lua_TE_X-ko와 X_Y_TE_X-ko는 그냥 “1”이지요.

저 자신은 절에 대하여 굳이 “제”와 “절”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원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터라, H_AT_EX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이 기능을 추가해봤습니다.

제 2 절 사용법

2.1 kotex-sections.sty

```
\usepackage{kotex-sections}
```

`\usepackage{kotex}` 이후에 와야 하고요, ko_TE_X에 [hangul] 옵션이 있든지 없든지 [hangul]을 준 것과 비슷하게 동작합니다.

2.2 \kscntformat

Lua_TE_X-ko, X_Y_TE_X-ko에서 삭제되어 있는 명령 `\kscntformat`을 쓸 수 있습니다.

```
\renewcommand{\thechapter}{\Hnum{chapter}}
```

```
\kscntformat{chapter}{~마당}
```

2.3 제한

oblivoir는 이미 이것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패키지가 필요없고요, ko_TE_X-utf에도 이 기능이 이미 있으니 이 패키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 article,

book, report에서 절표제를 수식하는 별도의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만 (비교적) 정상적으로 동작할 거라고 예상합니다.

제 3 절 예제

```
\documentclass{report}
\usepackage[hangul]{kotex}

\renewcommand{\thechapter}{\Hnum{chapter}}
\kscntformat{chapter}{~}{~마당}

\usepackage{jiwonlipsum}

\begin{document}

\chapter{일야에 구도하한 기록}

\section{강물은}
\jiwon
\end{document}
```